

초기 청소년의 교사 및 교우관계 잠재프로파일 전이양상과 영향요인 탐색*

정현희** · 장은애***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전환기에 놓인 초기 청소년이 경험하는 교사 및 교우관계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양상을 예측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초등학교 4학년 패널자료 중 3차년도(초6)와 4차년도(중1)에 응답한 2,258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잠재전이분석과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교사 및 교우관계 잠재프로파일은 초등학교 6학년 시점과 중학교 1학년 시점에서 모두 3개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들은 각각 '교사고-교우고 관계형', '교사중-교우중 관계형', '교사저-교우중 관계형'으로 명명되었다. 둘째, 초기 청소년의 교사 및 교우관계 전이양상을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6학년 시점의 교사 및 교우관계는 중학교 1학년으로 진학한 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전이되거나 또는 동일한 잠재집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저-교우중 관계형' 집단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전이될 확률도 높았지만, 그대로 유지될 확률도 높게 나타나 교사 및 교우관계 프로파일 유형에서 독특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셋째, 교사 및 교우관계 잠재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개인요인 중에서는 성별, 삶의 만족도가, 가정요인 중에서는 부모의 방임이, 그리고 학교요인 중에서는 성취가치, 학교규칙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이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우울, 삶의 만족도, 성취가치, 학교규칙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울은 '교사고-교우고 관계형'에서 한 단계 낮은 수준으로 이동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과 적응을 돕기 위한 예방과 개입에 있어서 교사 및 교우관계의 전이양상에 따른 개인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전환기, 초기 청소년, 교사관계, 교우관계, 잠재전이분석, 영향요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2A01046223).

**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신저자, hhchung@kmu.ac.kr

***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박사, eunae1120@naver.com

I. 서론

청소년 초기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되는 시기로, 이 시기에 놓인 청소년은 급격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변화를 겪게 된다(Anderman, 2003; Longobardi, Prino, Marengo & Settanni, 2016). 동시에 발생하는 이러한 변화는 초기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학업과 대인관계 및 심리적 적응 등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정현희, 2016; Eccles & Roeser, 2011). 이뿐만 아니라 초기 청소년들은 중학교 진학이라는 환경 변화까지 겪게 되는데, 중학교의 학교환경은 초등학교보다 엄격해진 규율, 과목별 수업 진행에 따른 교사-학생 간 교류 감소, 학업 부담의 증가와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새로운 적응을 요구하며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다(신희영, 장유진, 박채립, 2021; Zee, Koomen & Van der Veen, 2013). 특히 새로운 교사 및 교우들과의 대인관계는 진학 후에 직면하게 되는 중요한 적응 과제 중의 하나로, 이것이 순조롭지 않을 때는 학업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적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장희선, 2020; 조정아, 2012; McLaughlin & Nolen-Hoeksema, 2012).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학교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 부족 및 갈등, 그리고 학교폭력이나 따돌림과 같은 교우관계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강선모, 임혜경, 2021; 방현주, 정혜원, 2020; 이현철, 정시영, 최성보, 2015). 청소년 초기의 교사 및 교우관계 문제는 그 영향이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까지 계속될 수 있으며, 또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학급과 학교, 나아가 사회로 까지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삶의 중요한 전환기에 놓인 초기 청소년들이 중학교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교사 및 교우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돕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사 및 교우관계는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관한 많은 횡단 및 종단연구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져 왔다. 먼저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학생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며 학습동기를 증가시키고, 사회성과 자기조절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nsari, Hofkens & Pianta, 2020; Baker, 2006). 교사와의 관계는 또한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Davis, 2003; Joyce & Early, 2014; Pakarinen et al., 2018). 교사와의 부정적인 관계는 추후의 대인관계나 심리적 문제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rgin & Bergin, 2009). 한편,

연구자들은 교우관계가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해 왔다(이의빈, 권서영, 김유이, 임수지, 2021; McMahon, Creaven & Gallagher, 2020; Oldfield, Humphrey & Hebron, 2015; Prinstein & Aikins, 2004). 교우관계가 좋은 청소년은 행복하며(Nelis & Rae, 2009), 학교생활에도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민아, 안윤정, 2021; 이연숙, 박종호, 2021; Herres & Kobak, 2015). 또한 원만한 교우관계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Ma & Huebner, 2008; Nickerson & Nagle, 2004), 우울이나 자살에 대한 충동성을 낮추는 데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Kerr, Preuss & King, 2006; Stewart & Suldo, 2011).

많은 연구자들이 초기 청소년의 교사 및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이들의 연구는 주로 개인, 가정, 학교환경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져 왔다. 먼저 개인요인으로는 성별, 자아존중감, 자아개념, 사회적 위축 등이 교사 및 교우관계의 예측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권재기, 정미경, 2012; Allen, Hauser, Eickholt, Bell & O'Connor, 1994; Rudolph, 2009), 가정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방임, 부모-자녀관계,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같은 요인들이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애, 정현희, 2016; Bascoe, Davies, Sturge-Apple & Cummings, 2009). 학교요인으로는 학교유대감, 학업성취, 학업스트레스, 학교규칙과 같은 요인이 초기 청소년의 학교 내 대인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정미, 양명숙, 2006; 정현희, 2016; De Laet et al., 2016).

한편, 초기 청소년은 연령 증가와 환경 변화 및 다양한 경험으로 인해 교사 및 교우관계에서 유의한 변화를 겪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연구자들은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초기 청소년이 교사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변화를 겪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Baker(2006)는 아동 후기를 지나 청소년 초기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교사-학생 관계가 감소하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Furrer와 Skinner(2003)는 교사와의 관계가 초등학교까지는 긍정적인 양상을 유지하다가 중학교 진학 후에 급격하게 부정적인 양상으로 변화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학급당 학생 수의 증가, 수업방식의 변화, 학업부담 및 경쟁 증가 등 초등학교와 중학교 환경의 물리적 및 심리적 차이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Anderman, Maehr & Midgley, 1999; Roeser & Eccles, 1998).

그러나 청소년 초기 교우관계의 변화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관되지 않는다. 청소년 초기에는 대인관계가 성인지향에서 또래지향으로 변화하면서 긍정적인 교우관계가 증가한다는 주장도 있고(이주아, 이은경, 이순형, 이강이, 2016; Lynch & Cicchetti, 1997), 반면 경쟁적인 중학교 환경으로 인해 교우관계에서 부정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안수영, 이형실, 2009; Furrer & Skinner, 2003). 이러한 엇갈린 연구결과들은 초기 청소년의 교우관계 변화에 대한 추가의 탐색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이 연구결과는 교사 및 교우관계가 초기 청소년의 적응과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개인요인 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의 다양한 요인들이 교사 및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일관되게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교사 및 교우관계는 시간과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점을 갖고 있으며, 추가의 연구를 통해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연구의 범위를 확장 시킬 필요가 있다.

첫째,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는 회귀분석이나 구조방정식모형, 잠재성장모형 검증 등을 통해 교사 및 교우관계가 우울이나 비행, 또는 학교적응과 같은 발달성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살펴보거나, 또는 특정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교사 및 교우관계가 나타내는 매개효과나 조절효과를 알아본 변인중심(variable-oriented)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김종백, 김남희, 2014; 이현철 등, 2015; 정병삼, 2012; Meeus, 2016). 반면, 다양한 양상으로 교사 및 교우관계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본 개인중심(person-oriented)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교사 및 교우관계의 변화양상을 개인중심 접근으로 살펴보는 것은 청소년 초기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청소년상담 현장에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교사 및 교우관계가 초기 청소년의 적응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별도로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교사 및 교우관계의 영향을 함께 살펴본 연구는 드물었다. 생태학적 이론에서는 교사 및 교우관계가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각각의 영향뿐만 아니라, 이 두 관계의 상호작용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Bronfenbrenner & Morris, 2006). 또한 Davis(2003)는 애착이론에 근거하여 교사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학생은 교우관계에서 회피나 거부, 고립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교사 및 교우관계의 변화 양상을 독립적으로만 다루기보다는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교사 및 교우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종단적으로, 그리고 개인중심 접근에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Wang, Hatzigianni, Shahaeian, Murray와 Harrison(2016)은 군집분석을 사용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교사 및 교우관계 프로파일을 확인한 후, 2년 후의 사회적·정서적 적응에서 군집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교사 및 교우관계에서 모두 적응적인 양상을 보이는 군집의 아동들은 다른 군집의 아동들에 비해 이후의 사회적·정서적 적응에서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는 연구 대상이 초기 아동기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군집분석도 한 시점에서만 이루어져 서로 다른 시점에서의 잠재집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보는 데는 한계를 갖고 있다. 다른 연구로 미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사 및 교우관계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를 살펴본 León과 Liew(2017)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 및 교우관계의 유형이 저교우-저교사 관계형, 중교우-저교사 관계형, 중교우-중교사 관계형, 고교우-고교사 관계형의 네 하위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한 시점에서 초기 청소년이 교사 및 교우관계에서 나타내는 개인차에 초점이 맞추어져, 시간과 환경 변화에 따른 변화양상을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종단연구에서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잠재전이분석을 적용하여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시기에 각각 초기 청소년이 경험하는 교사 및 교우관계 유형을 살펴보고, 이러한 유형이 중학교 진학 후에 어떻게 전이되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선행연구를 통해 교사 및 교우관계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요인들을 개인요인(성별, 사회적 위축, 우울, 삶의 만족도), 가정요인(부모의 방임, 학대), 학교요인(성취가치, 학교규칙준수)으로 나누어 이러한 요인들이 교사 및 교우관계의 전이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요한 발달적 전환기에 놓여있는 초기 청소년들의 교사 및 교우관계의 종단적 변화양상과 그러한 변화양상을 예측하는 요인을 살펴보는 본 연구는 청소년 초기 발달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나아가 교사 및 교우관계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도움을 주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초기 청소년의 부적응을 예방하고 개입하기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초4 패널 종단자료 가운데 3차년도(2012년)와 4차년도(2013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은 2010년 4월 기준 교육부의 학교통계 표집 틀에 근거하여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방법을 통해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3차년도(초6)와 4차년도(중1) 중에 응답하지 못한 자료를 제외하여 총 2,258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학생들의 성별분포는 남학생 1,189명(52.7%), 여학생 1,069명(47.3%)이었다.

2. 측정도구

1) 교사 및 교우관계

(1) 교사관계

교사관계 척도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민병수(1991)의 연구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등을 측정하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식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3차년도 .89, 4차년도 .85로 나타났다.

(2) 교우관계

교우관계 척도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민병수(1991)의 연구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 등 교우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식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우관계가 원만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3차년도 .57, 4차년도 .61로 나타났다.

2) 교사 및 교우관계의 영향요인

(1) 개인요인

교사와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으로 성별, 사회적 위축, 우울, 삶의 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 중 성별은 여자는 0, 남자는 1로 더미코딩되었다. 사회적 위축 척도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김선희와 김경연(1998)의 연구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해 한다.’,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 등을 측정하는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울 척도는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의 연구를 참고하여 수정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기운이 별로 없다.’,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등을 측정하는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삶의 만족도 척도는 김신영 등(2006)의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식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 우울,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사회적 위축 .89, 우울 .92, 삶의 만족도 .86으로 나타났다.

(2) 가정요인

교사와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요인으로 부모의 방임, 학대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모의 방임과 학대 척도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허묘연(2000), 김세원(2003)의 연구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한 척도이다. 방임 척도는 ‘다른 일(직장이나 바깥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보신다.’ 등 부모의 방임에 대한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대 척도는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께서서는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께서서는 무조건 때리려고 하신다.’ 등 부모의 학대에 대한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식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방임과 학대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부모의 방임 .81, 학대 .84로 나타났다.

(3) 학교요인

교사와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요인으로 성취가치, 학교규칙 척도를 사용하였다. 성취가치 척도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양명희(2000)의 연구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한 척도이다. 성취가치 척도는 ‘학교 공부는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나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등 성취가치에 대한 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교규칙 척도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민병수(1991)의 연구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당번이나 1인 1역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학교 물건을 내 것처럼 소중히 사용한다.’ 등 학교규칙을 측정하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식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취가치가 높고 학교규칙 적응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성취가치 .90, 학교규칙 .81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잠재전이분석(Latent Transition Analysis, 이하 LTA)을 통해 이루어졌다. LTA는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이하 LCA)을 두 시점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 서로 다른 두 시점에서 분석된 잠재집단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초점을 둔 분석 방법이다(Collins & Lanza, 2013). LTA 분석을 위해 Mplus 8.0을 사용하였으며, 결측치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활용하여 처리하였다. FIML은 편향되지 않은 추정치를 제공하며, 다중대체법에 비해 표준오차가 적고, 효율적인 추정치를 제공한다(김수영, 2020). 본 연구에서는 교사 및 교우관계의 잠재프로파일을 분석한 후, 영향요인 검증을 위해 1단계 접근방법을 보완한 3단계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Asparouhov & Muthen, 2014). 3단계 접근방법을 적용한 잠재전이 분석은 다음과 같다. 먼저 1단계에서는 공변인을 포함하지 않고 각각의 시점에 적절한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한다. 2단계에서는 계산된 사후확률에 따라 개인에게 잠재프로파일의 확률값을 입력한다. 3단계에서는 잠재프로파일의 분류 과정 중에 생긴 측정오차를 고정하여 오차를 교정한다. 또한 공변인을 포함하는 잠재전이 분석의 경우, 3단계의 결합된 모형에 각 잠재프로파일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와

잠재프로파일의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함께 포함하여 다항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공변인의 효과를 검증한다.

잠재프로파일에서 최적의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정보지수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sian Infromation Criterion), SABIC(Sample-size Adjusted BIC)를 구하여 어떤 모델이 더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AIC, BIC, SABIC가 작을수록 적합한 모형을 의미한다(Akaike, 1974). Entropy는 하나의 잠재프로파일에 속할 확률을 나타내는 값으로 0과 1사이의 값으로 제시된다. 이 값은 1에 가까울수록 하나의 잠재프로파일에 속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Clark, 2010). 모형 비교 검증 방법은 LMR(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를 사용하였다(Lo, Mendell & Rubin, 2001). LMR_LRT는 (k-1)개 잠재집단 모형과 k개 잠재집단 모형의 검증 결과, p값이 유의하지 않다면 (k-1)개의 잠재집단 모형을 선택하고, 유의하다면 k개의 잠재집단 모형을 선택한다. 그리고 3단계 접근 방법 중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각 프로파일별로 교사와 교우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영향요인은 준거집단을 기준으로 비교집단에 속할 승산비(odds ratio)를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다. 승산비는 독립변수 X 의 로짓 회귀계수 b 를 $\exp(b)$ 로 변환시킨 값으로 독립변수 X 를 1단위 증가할수록 얻어지는 종속변수의 승산의 증가배수이다. 또한 승산에 있어서 변화 백분율은 $\exp(b)$ 로부터 1을 뺀 후 100을 곱한 값으로 해석할 수 있다(홍세희, 2019).

4.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에서 원으로 표현된 변수는 잠재변수를, 사각형으로 표현된 변수는 측정변수를 의미한다. 점선으로 표시된 경로는 초등학교의 잠재계층에서 중학교 잠재계층으로의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초등학교 시기의 교사 및 교우관계와 관련된 개인(성별, 사회적 위축, 우울, 삶의 만족도), 가정(부모의 방임, 학대), 학교(성취가치, 학교규칙) 요인들이 중학교 시기의 교사 및 교우관계 잠재프로파일 전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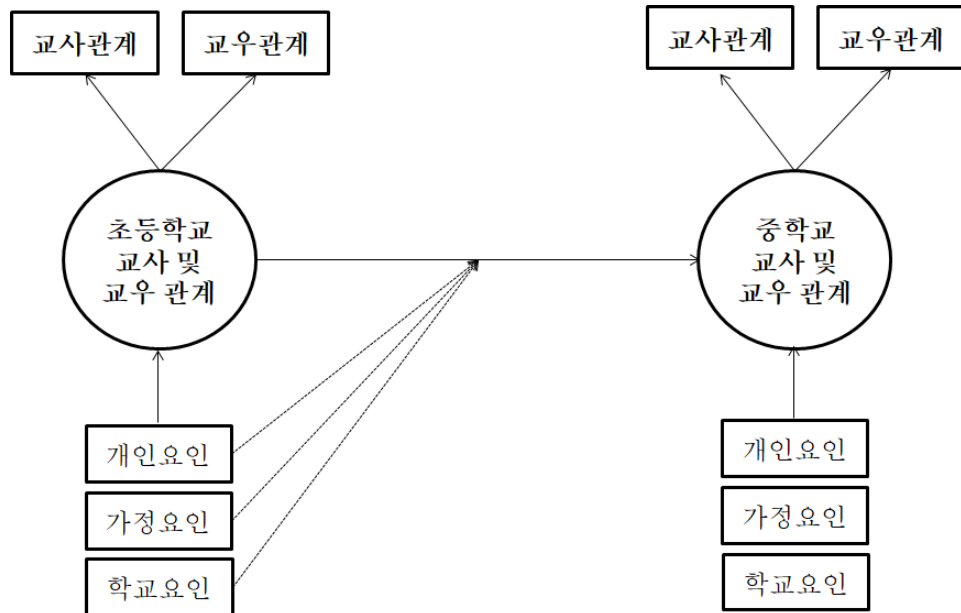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II.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교사관계의 평균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교우관계의 평균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교사관계는 교우관계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각 시기별로 비교적 양호한 상관을 나타냈다. 교사와 교우관계는 사회적 위축, 우울, 부모의 학대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삶의 만족도, 부모의 방임, 성취가치, 학교규칙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	-										
2	.38**	-									
3	.27**	.18**	-								
4	.14**	.31**	.42**	-							
5	-.16**	-.19**	-.18**	-.14**	-						
6	-.21**	-.20**	-.17**	-.17**	.59**	-					
7	.30**	.36**	.16**	.22**	-.28**	-.53**	-				
8	.28**	.29**	.17**	.17**	-.17**	-.27**	.36**	-			
9	-.10**	-.03**	-.08**	-.03**	.17**	.35**	-.22**	-.20**	-		
10	.47**	.41**	.26**	.21**	-.14**	-.25**	.37**	.34**	-.17**	-	
11	.45**	.34**	.27**	.18**	-.10**	-.21**	.28**	.26**	-.14**	.51**	-
M	15.17	14.57	14.65	14.54	10.21	17.03	9.69	13.48	6.73	21.82	14.91
SD	3.54	2.24	3.25	1.99	3.77	6.05	2.01	2.38	2.57	4.07	2.77

주. ①초6교사관계 ②초6교우관계 ③중1교사관계 ④중1교우관계 ⑤초6사회적 위축 ⑥초6우울
⑦초6삶의 만족도 ⑧초6부모의방임 ⑨초6부모의학대 ⑩초6성취가치 ⑪초6학교규칙.

** $p < .01$.

2. 시점 별 잠재프로파일의 수

시점 별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6학년(이하 초6)과 중학교 1학년(이하 중1)의 잠재프로파일 수를 2개부터 증가시키며 정보지수인 AIC, BIC, SABIC와 Entropy, LMR_LRT와 분류율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표 2, 그림 2와 같다.

표 2

시점 별 잠재프로파일의 적합도 지수

분류기준		초6 잠재프로파일 수				중1 잠재프로파일 수			
		2	3	4	5	2	3	4	5
정보 지수	AIC	21514,589	21158,434	21053,668	20827,584	18908,248	18636,906	18510,969	18437,890
	BIC	21554,519	21215,477	21127,825	20918,854	18947,627	18693,162	18584,102	18527,900
	SABIC	21532,279	21183,706	21086,522	20868,019	18925,387	18661,391	18542,800	18477,066
Entropy		0,435	0,818	0,853	0,844	0,710	0,836	0,846	0,863

분류기준		초6 잠재프로파일 수				중1 잠재프로파일 수			
		2	3	4	5	2	3	4	5
모형 비교 검증	LMR_								
	LRT	247.097 [*]	362.155^{***}	110.765 ^{**}	70.178 ^{***}	395.542 ^{***}	277.342^{***}	131.937 ^{***}	79.079
분류율	class1	0.427	0.556	0.577	0.179	0.78355	0.65293	0.19374	0.00341
	class2	0.573	0.108	0.092	0.042	0.21645	0.11472	0.04359	0.04246
	class3		0.336	0.008	0.392		0.23235	0.22789	0.53499
	class4			0.324	0.297			0.53478	0.19144
	class5				0.091				0.22770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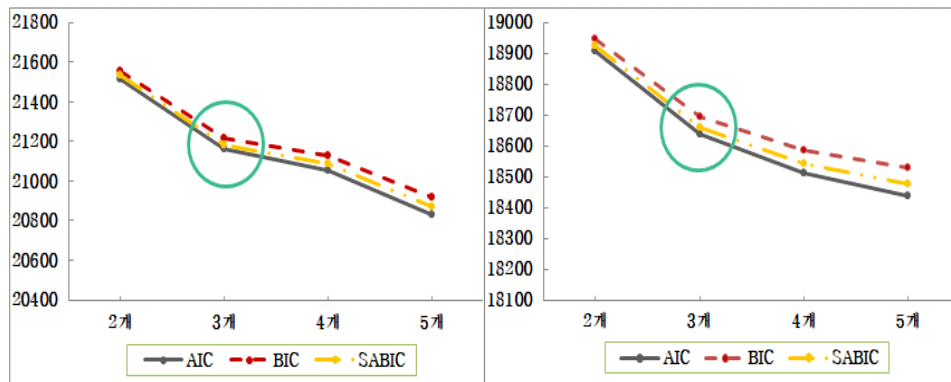


그림 2. 잠재프로파일의 수 증가에 따른 AIC, BIC, SABIC의 변화(왼쪽: 초6, 오른쪽: 중1)

초6 시점의 정보지수를 비교한 결과,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5개로 증가할수록 AIC, BIC, SABIC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3개로 증가할 때 가장 가파르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Entropy는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4개일 때 가장 높았다. LMR_LRT는 5개 잠재계층 수에서 유의하였다. 분류율에서는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4개일 때 5%보다 작은 집단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druff, Carraro, Thompson, Gaudreau & Louvet(2009)은 가능한 각 집단의 비율이 5%를 넘는 것이 좋다고 권유하였다. 또한 Collins와 Lanza(2013)도 모형을 결정할 때는 집단 구성비율의 적절성, 각 모형의 변화유형 구분의 명확성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보지수와 Entropy, LMR, LRT, BLRT, 분류율의 해석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잠재계층 수는 3개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중1 시점의 경우에도 AIC, BIC, SABIC는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3개로 증가할 때 가장 가파르게 감소하였다. Entropy는 계층의 수를 증가할수록 점점 높아졌다. LMR_LRT를 살펴보았을 때, 중1 시점의 잠재계층의 수가 5개일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각 잠재프로파일 형태인 분류율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으며, 3개일 때 프로파일별 이질성(heterogeneity)을 더 잘 설명한다고 판단하였다.

3. 시점 별 잠재프로파일의 특성

초6 시점의 3개, 중1 시점의 3개 잠재프로파일 유형별로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교사 및 교우관계의 계수와 표준오차를 분석하였다. 모든 계수는 유의확률 .001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분된 각 잠재프로파일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계수의 값을 고려하여 각 잠재집단을 명명하였다. 초6 시점의 첫 번째 잠재집단은 세 유형 중 교사 및 교우관계 계수가 가장 높아 첫 번째 잠재집단은 ‘교사고-교우고 관계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전체 33.6%의 학생들이 속해 있는 잠재집단이다. 두 번째 잠재집단은 계수가 14,221, 14,079로 교사 및 교우관계가 중간수준으로 나타나 ‘교사중-교우중 관계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전체 55.6%의 학생들이 속해 있는 잠재집단으로 세 잠재집단 중에서 비율이 가장 크다. 세 번째 잠재집단은 교사관계의 계수가 8,516로 세 잠재집단 중 교사 및 교우관계 계수가 가장 낮아 ‘교사저-교우중 관계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전체 10.8%의 학생들이 속해 있는 잠재집단으로 세 잠재집단 중에서 비율이 가장 낮았다.

중1 시점의 첫 번째 잠재집단은 세 잠재집단 중 교사 및 교우관계 계수는 18,880, 16,337로 가장 높게 나타나 ‘교사고-교우고 관계형’으로 명명하였다. 전체의 23.2%의 학생들이 속해 있는 잠재집단이다. 두 번째 잠재집단은 계수가 14,132, 14,091로 세 잠재집단 중에서 중간수준으로 나타나 ‘교사중-교우중 관계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전체의 65.3%의 학생들이 속해 있는 잠재집단으로 세 잠재집단 중에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초6 시점의 두 번째 잠재집단보다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세 번째 잠재집단은 교사관계의 계수가 9.035로 세 잠재집단 중 교사 및 교우관계 계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 ‘교사자-교우중 관계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전체의 11.5%가 포함되어 세 잠재집단 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잠재프로파일 유형별 계수와 표준오차를 분석한 결과는 표 3, 형태는 그림 3과 같다.

표 3

잠재프로파일 유형별 계수와 표준오차

	초6						중1					
	교사고-교우고 관계형		교사중-교우중 관계형		교사자-교우중 관계형		교사고-교우고 관계형		교사중-교우중 관계형		교사자-교우중 관계형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교사 관계	18,881	0,080	14,221	0,098	8,516	0,292	18,880	0,074	14,132	0,077	9,035	0,266
교우 관계	15,799	0,088	14,079	0,060	13,323	0,204	16,337	0,115	14,091	0,045	13,497	0,175
(%)	33,6		55,6		10,8		23,2		65,3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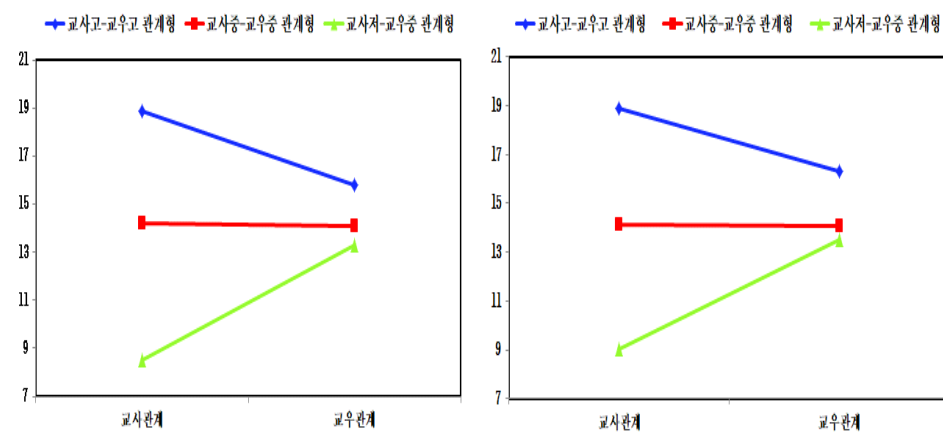


그림 3. 교사 및 교우관계 잠재프로파일 유형의 형태(왼쪽: 초6, 오른쪽: 중1)

4. 교사 및 교우관계의 잠재전이 분석

초6 시점의 교사 및 교우관계 잠재프로파일 유형이 중1 시점의 유형에 어떻게 전이 되는지 살펴보았다. 초6 시점의 유형별 잠재전이 확률은 표 4와 같다.

표 4

교사 및 교우관계의 잠재전이 확률

교사-교우 관계 전이확률(%)	중1		
	교사고-교우고 관계형	교사중-교우중 관계형	교사저-교우중 관계형
교사고-교우고 관계형	39.6	52.6	7.7
교사중-교우중 관계형	14.5	74.7	10.7
교사저-교우중 관계형	16.7	56.4	26.9

분석 결과, 초6 시점의 3개 잠재프로파일 유형은 중1 시점의 3개 잠재프로파일 중 ‘교사중-교우중 관계형’으로 가장 많이 전이되었다. 초6 시점의 ‘교사고-교우고 관계형’은 중1 시점의 ‘교사고-교우고 관계형’으로 그대로 유지될 확률이 39.6%였으며, ‘교사중-교우중 관계형’으로 52.6%, ‘교사저-교우중 관계형’으로 7.7% 전이되었다. 초6 시점의 ‘교우중-교사중 관계형’은 중학교 진학 후에도 집단을 그대로 유지할 확률이 74.7%였다. 초6 시점의 ‘교사중-교우중 관계형’은 ‘교사고-교우고 관계형’으로 14.5%, ‘교사저-교우중 관계형’으로 10.7% 전이되었다. 마지막으로 초6 시점의 ‘교사저-교우중 관계형’은 ‘교사고-교우고 관계형’으로 16.7%, ‘교사중-교우중 관계형’으로 56.4% 전이되었다. 한편, ‘교사저-교우중 관계형’에서 ‘교사중-교우중 관계형’으로 이동할 확률은 같은 집단으로 유지할 확률보다 높고, 중학교 진학 후에도 ‘교사저-교우중 관계형’에 그대로 유지될 확률도 26.9%로 높아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교사 및 교우관계의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결정한 3개의 잠재프로파일 유형에 영향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3단계 접근방법으로 다항 로지스틱 분석을 하여 효과여부를 검증하였다. 준거집단(reference group)으로 ‘교사고-교우고 관계형’으로 설정하였으며, 설정한 준거집단을 다른 나머지 잠재집단과 비교하였다. 독립변수로는 개인요인(성별, 사회적 위축, 우울, 삶의 만족도), 가정요인(부모의 방임과 학대), 학교요인(성취가치, 학교규칙)을 검증하였다.

첫째, 먼저 초6 시점의 ‘교사고-교우고 관계형’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교사저-교우중 관계형’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삶의 만족도, 방임, 학교규칙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방임, 학교규칙은 승산비가 .757, .844, .634이므로 삶의 만족도, 부모의 방임, 학교규칙 적응수준이 1점 높아질수록 ‘교사고-교우고 관계형’보다 ‘교사저-교우중 관계형’에 속할 가능성이 24.3%, 15.6%, 36.6%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부모의 방임수준이 낮을수록, 학교규칙 생활적응수준이 낮을수록 ‘교사고-교우고 집단’보다 ‘교사저-교우중 관계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초6 시점의 ‘교사고-교우고 관계형’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교사중-교우중 관계형’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서는 삶의 만족도, 부모의 방임, 학교규칙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방임, 학교규칙은 승산비가 .812, .869, .765이므로 삶의 만족도, 부모의 방임, 학교규칙 적응수준이 1점 높아질수록 ‘교사고-교우고 관계형’보다 ‘교사저-교우중 관계형’에 속할 가능성이 19.8%, 13.1%, 23.5%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삶의 만족도, 부모의 방임, 학교규칙 적응수준이 낮을수록 ‘교사고-교우고 집단’보다 ‘교사중-교우중 관계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초6 시점의 교사 및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초6 시점 교사 및 교우관계의 영향요인(준거집단: 교사고-교우고 관계형)

구분	영향 요인	교사저-교우중 관계형			교사중-교우중 관계형		
		계수	표준오차	OR	계수	표준오차	OR
개인 요인	성별	.340	.214	1.406	.255	.138	.979
	사회적 위축	.010	.046	1.010	.078	.024	1.081
	우울	.011	.029	1.011	-.015	.018	.985
	삶의 만족도	-.278^{***}	.068	.757	-.208^{***}	.053	.812

구분	영향 요인	교사자-교우중 관계형			교사중-교우중 관계형		
		계수	표준오차	OR	계수	표준오차	OR
가정 요인	방임	-.170^{***}	.047	.844	-.141^{***}	.038	.869
	학대	-.070	.043	.932	-.058	.030	.943
학교 요인	성취가치	-.003	.017	.997	-.021	.011	.979
	학교규칙	-.456^{***}	.042	.634	-.268^{***}	.029	.765

*** $p < .001$.

둘째, 먼저 중1 시점의 ‘교사고-교우고 관계형’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교사자-교우중 관계형’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서는 성별, 성취가치, 학교규칙으로 나타났다. 성별, 성취가치, 학교규칙은 승산비가 .700, .941, .833이므로, 성별은 여학생일수록, 방임과 학교규칙 적응수준은 1점 높아질수록 ‘교사고-교우고 관계형’보다 ‘교사자-교우중 관계형’에 속할 가능성이 30.0%, 5.9%, 16.7%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일수록, 성취가치와 학교규칙 적응수준이 낮을수록 ‘교사고-교우고 집단’보다 ‘교사자-교우중 관계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중1 시점의 ‘교사고-교우고 관계형’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교사중-교우중 관계형’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영향을 미친 학교요인으로서는 성취가치와 학교규칙으로 나타났다. 성취가치와 학교규칙은 승산비가 .969, .882이므로, 성취가치와 학교규칙 적응 수준이 1점 높을수록 ‘교사고-교우고 집단’보다 ‘교사자-교우중 관계형’에 속할 가능성이 3.1%, 11.8%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취가치와 학교규칙 적응수준이 낮을수록 ‘교사고-교우고 관계형’보다 ‘교사자-교우중 관계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중1 시점의 교사 및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중1 시점 교사 및 교우관계의 영향 요인(준거집단: 교사고-교우고 관계형)

구분	영향 요인	교사자-교우중 관계형			교사중-교우중 관계형		
		계수	표준오차	OR	계수	표준오차	OR
개인 요인	성별	-.356[*]	.206	.700	-.116	.134	.890
	사회적 위축	-.005	.034	.995	.036	.023	1.036
	우울	.043	.024	1.044	.006	.018	1.006
	삶의 만족도	.035	.060	1.036	-.052	.046	.949

구분	영향 요인	교사저-교우중 관계형			교사중-교우중 관계형		
		계수	표준오차	OR	계수	표준오차	OR
가정 요인	방임	-.077	.046	.926	-.072	.037	.930
	학대	-.022	.044	.979	.011	.031	1.011
학교 요인	성취가치	-.061***	.018	.941	-.031***	.012	.969
	학교규칙	-.183***	.032	.833	-.126***	.023	.882

* $p < .05$. *** $p < .001$.

6. 교사 및 교우관계 전이과정의 영향요인

초6 시점의 교사 및 교우관계 잠재집단에서 중1 시점의 교사 및 교우관계 잠재집단으로의 전이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고-교우고 관계형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여 교사 및 교우관계 전이과정의 영향요인을 살펴보았으며, 영향요인은 초6 시점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초6 시점에서 중1 시점으로의 전이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우울, 삶의 만족도, 성취가치, 학교규칙으로 나타났다. 준거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저-교우저 관계형’에서 ‘교사저-교우저 관계형’으로의 전이에 .05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요인은 성취가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취가치가 높을수록 준거집단 그대로 ‘교사저-교우저 관계형’으로 전이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둘째, ‘교사중-교우중 관계형’에서 ‘교사중-교우중 관계형’으로의 전이에 .05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요인은 우울, 삶의 만족도, 성취가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 삶의 만족도, 성취가치가 높을수록 준거집단인 ‘교사중-교우중 관계형’으로 그대로 전이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셋째, ‘교사고-교우고 집단’에서 ‘교사중-교우중 관계형’으로의 전이에 .05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요인은 우울과 학교규칙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이 높을수록 준거집단보다 비교집단인 ‘교사중-교우중 관계형’에 전이될 확률이 높으며, 학교규칙 적응수준이 높을수록 준거집단인 ‘교사고-교우고 관계형’에 전이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특히, 성별은 ‘교사고-교우고 관계형’에서 ‘교사중-교우중 관계형’으로의 전이에 .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일수록 비교집단보다 준거집단인 ‘교사고-교우고 관계형’에 전이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하며, 여학생일수록

‘교사고-교우고 관계형’보다 ‘교사중-교우중 관계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7

교사 및 교우관계 전이과정의 영향요인(영향요인은 초6 시점의 문항임)

구분	영향 요인	저 vs 저			중 vs 중			고 vs 중		
		계수	표준오차	OR	계수	표준오차	OR	계수	표준오차	OR
개인 요인	성별	.107	.922	1.113	.314	.231	1.369	-.617^{**}	.229	.539[*]
	사회적 위축	.066	.179	1.069	.047	.049	1.048	-.023	.039	.978
	우울	.181	.140	1.198	-.062[*]	.031	.940[*]	.082[*]	.033	1.085[*]
가정 요인	삶의 만족도	.457	.396	1.579	-.179[*]	.073	.836[*]	.062	.080	1.064
	방임	-.051	.175	.951	-.096	.068	.908	-.045	.062	.956
	학대	-.140	.151	.869	-.005	.057	.995	.020	.052	1.020
학교 요인	성취가치	-.224[*]	.098	.799[*]	-.044[*]	.021	.957[*]	.003	.019	1.003
	학교규칙	-.142	.146	.868	-.054	.043	.947	-.193[*]	.053	.824[*]

주. 전이과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나타난 잠재집단의 결과만 제시함.

* $p < .05$. ** $p < .01$.

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이행하는 전환기에 놓인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교사 및 교우관계 잠재프로파일의 유형을 분류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잠재프로파일 유형 간 전이양상을 파악하였다. 또한 각 잠재프로파일 유형과 전이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청소년의 교사 및 교우관계는 초등학교 6학년 시점과 중학교 1학년 시점 모두 3개의 잠재프로파일 유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잠재프로파일의 유형은 각 시점별로 ‘교사고-교우고 관계형’, ‘교사중-교우중 관계형’, ‘교사저-교우중

관계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 및 교우관계가 '고교우-고교사 관계형', '중교우-중교사 관계형', '중교우-저교사 관계형', '저교우-저교사 관계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확인한 León과 Liew(201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León과 Liew(2017)의 연구에서 도출되었던 교사 및 교우관계 모두에서 낮은 수준을 보인 집단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는 초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León과 Liew(2017)의 연구는 한 시점에서 중학교 전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확인된 잠재집단 중에서 교우관계에서는 보통 수준을 보이지만 교사관계에서만 낮은 수준을 보인 '교사저-교우중 관계형' 유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교사 및 교우들과의 대인관계는 진학 후에 직면하게 되는 중요한 적응 과제 중의 하나로, 이것이 순조롭지 않을 때는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적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장희선, 2020; McLaughlin & Nolen-Hoeksema, 2012). 이렇듯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이행됨에 따라 초기 청소년들이 지각한 교사 및 교우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본 연구의 결과는 교사 및 교우들과의 대인관계의 변화양상을 독립적으로 다루기보다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교사 및 교우관계의 잠재전이를 분석한 결과, '교사중-교우중 관계형'은 초등학교 6학년 시점의 교사 및 교우관계가 중학교 1학년 시점에서도 동일한 유형의 잠재집단으로 전이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교우관계가 좋은 청소년은 학교생활에도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고한 여러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이연숙, 박종효, 2021; Davis, 2003; Joyce & Early, 2014; Nelis & Rae, 2009). 한편, 잠재집단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교사저-교사중 관계형'에서 한 단계 높은 수준인 '교사중-교우중 관계형'으로 전이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중학교 1학년 시점을 살펴보면, '교사저-교우중 관계형' 잠재집단은 그대로 유지될 확률이 세 잠재집단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한 후 '교사저-교우중 관계형'은 그대로 낮은 교사관계 유형에 머무를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 교사 및 교우관계 전이과정에서 매우 독특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 후기를 지나 청소년 초기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교사-학생 관계가 감소하기 시작하며, 중학교

진학 후에 급격하게 부정적인 양상으로 변화한다고 보고한 Baker(2006)의 연구결과, Furrer와 Skinner(2003)의 연구결과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교사-교우 중 관계형’ 유형에 속하는 청소년들은 중학교 진학 후 교사와 부정적인 관계로 인해 학교생활 적응뿐만 아니라, 교우관계나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 (Bergin & Bergin, 2009). 이렇듯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교사와 교우관계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양한 전이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초기 청소년의 교사와 교우관계를 증진하고 나아가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상담적 개입과 예방에 있어서 초기 청소년들의 개인차를 고려한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시점의 교사 및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성별, 삶의 만족도, 부모의 방임, 성취가치, 학교규칙으로 나타났다. 각 시점별로 살펴보면, 먼저 초등학교 6학년 시점의 잠재프로파일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은 개인요인인 삶의 만족도, 가정요인인 방임, 학교요인인 학교규칙이었다. 즉,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는 개인, 가정, 학교요인이 교사 및 교우관계 프로파일 유형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삶의 만족도, 방임 등 부모의 양육태도, 학교규칙 등이 초기 청소년의 학교 내 대인관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뒷받침한다(손수경, 이현정, 홍세희, 2017; 정현희, 김후남, 2019; Bascoe et al., 2009; Nickerson & Nagle, 2004). 반면, 중학교 1학년 시점의 잠재프로파일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은 개인요인인 성별, 학교요인인 성취가치, 학교규칙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 및 교우와 긍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은 학업동기와 성취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고한 이정미, 양명숙(2006)의 연구결과, Wang 등(2013)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국내연구에서도 청소년의 학업적응은 개인이나 가정요인보다는 학교환경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장희선(2020)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처럼 초등학교 6학년 시점과 달리 중학교 1학년 시점에는 성별과 학교요인인 성취가치, 학교규칙이 예측요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중학교 진학 후의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한 교사 및 상담사의 세심한 애정과 관심이 더욱 필요하며, 더욱이 학교적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사와 교우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성취가치, 학교규칙 준수와 관련된 경험적이고 구체적인 개입전략과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초6 시점의 교사 및 교우관계 잠재집단에서 중1 시점의 교사 및 교우관계 잠

재집단으로의 전이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성별, 우울, 삶의 만족도, 성취가치, 학교규칙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 삶의 만족도, 성취가치는 ‘교사중-교우중 관계형’에서 그대로 유지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 및 교우관계가 긍정적일수록 학교규칙을 잘 준수하며(정현희, 2016; De Laet et al., 2016),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가치를 내면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Roorda et al., 2011; Wentzel, 2002)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이처럼 본 연구의 결과는 교사 및 교우관계가 시간과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개인요인 뿐만 아니라 학교환경의 다양한 요인들이 교사 및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전환기에 놓인 초기 청소년의 상담과 지도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교사 및 교우관계의 잠재집단 프로파일이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고, 전이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는 초기 청소년의 교사 및 교우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상담적 개입과 예방에 있어 개인중심 접근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즉, ‘교사-교우중 관계형’ 유형은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한 단계 높은 단계로 전이되기도 하지만 그대로 머무를 가능성도 높게 나타나, 특히 교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보여 고위험 집단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의 학생들은 상담장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입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인다. 한편, 초등학교 6학년 시점의 ‘교사-교우고 관계형’은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교사중-교우중 관계형’으로 한 단계 낮은 단계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도 교사와 교우관계에 있어 이전보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또한 교사 및 교우관계의 질을 높음으로써 적응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초기 청소년의 교사 및 교우관계를 증진하고 나아가 이들의 심리적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개입뿐만 아니라 교사들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교사들에게 초기 청소년들의 발달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연수를 제공하고, 아울러 학생들과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중학교 1학년 교사들에게는 자문이나 의사소통 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의 범위를 확장하여 초기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교사와 교우관계의 프로파일 분류와 전이양상을 살펴보고, 분류된 프로파일과

전이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정, 학교환경의 예측요인이 무엇인지 다양하게 살펴봄으로써, 예방과 개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분석된 자료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의 변수들 중 일부를 선별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초기 청소년의 자기보고를 통해서만 측정되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 본인뿐만 아니라 교사, 또래에 의한 다면적인 평가를 포함하여 측정의 객관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초6에서 중1로 전환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따라서 교사 및 교우관계는 청소년기 발달과정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고등학교 및 대학교 전환기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 프로파일을 보다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선모, 임혜경 (2021). 과거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초기 성인기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 653-666.
- 권재기, 정미경 (2012). 학령후기 학교적응 프로파일과 관련된 개인·가정환경 변인의 단기 종단적 분석: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이용하여. **아동교육**, 21(3), 147-167.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 정신진단검사 실시 요강**.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김민아, 안운정 (2021).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공격성 매개효과와 교사 및 또래 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53, 375-400. doi:10.20993/jssw.53.15
- 김선희, 김경연 (1998).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 문제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55-166.
- 김세원 (2009). 지역사회 특성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3수준 다층 성장 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아동복지학**, 28, 101-135.
- 김수영 (2020).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MPLUS예제와 함께**. 서울: 학지사.
- 김종백, 김남희 (2014). 교사와 학생이 지각한 학생-교사 관계의 변화가 학생의 학교행복과 수업참여를 매개로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1(12), 285-315.
- 민병수 (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방현주, 정혜원 (2020). 청소년 문제행동의 잠재프로파일 분류 및 영향요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27(4), 43-69. doi:10.21509/KJYS.2020.04.27.4.43
- 손수경, 이현정, 홍세희 (2017). 학교 학습활동과 교우관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할함수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종단관계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8(2), 57-88. doi:10.14816/sky.2017.28.3.57
- 신희영, 장유진, 박채림 (2021). 초기 청소년의 지각된 관계적 지지 프로파일과 사회적 적응 행동.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4(1), 21-46. doi:10.35574/KJDP.2021.3.34.1.21
- 안수영, 이형실 (2009). 남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과 교육학회지**, 21(3), 163-176.
- 양명희 (2000). **자기조절학습의 모형 탐색과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연숙, 박종호 (2021).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또래 및 교사 애착의 매개 효과와 초·중·고등학생의 집단 차이. **교육심리연구**, 35(1), 75-96. doi:10.17286/KJEP.2021.35.1.04
- 이영애, 정현희 (2016). 초기 청소년의 학교적응 변화양상과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27(2), 187-214. doi:10.14816/sky.2016.27.2.187
- 이의빈, 권서영, 김유이, 임수지 (202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과잉간섭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과 부정적 교우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32(1), 87-115. doi:10.14816/sky.2021.32.1.87
- 이정미, 양명숙 (2006). 청소년 전환기 문제행동: 가정 및 학교환경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7(3), 865-883.
- 이주아, 이은경, 이순형, 이강이 (2016). 초기 청소년의 또래관계 변화 궤적과 긍정자아 인식, 부모자녀관계의 구조적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60-260.
- 이현철, 정시영, 최성보 (2015). 초·중학생의 교사관계 인식의 종단적 변화 양상과 예측 요인. **교육문화연구**, 21(3), 57-82. doi:10.24159/joec.2015.21.3.57
- 정병삼 (2012). 부모, 교사, 친구관계에서 지각하는 지지가 초기 청소년들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종단적 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3(2), 131-159.
- 정현희 (2016). 청소년 초기 교사-학생 관계의 종단적 변화유형에 따른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과 학교적응. **청소년상담연구**, 24(1), 245-266. doi:10.35151/kyci.2016.24.1.012
- 장희선 (2020).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전환기 학생의 자기결정성동기 잠재전이분석 및 부모 변인 예측효과 검증. **아시아교육연구**, 21(2), 373-407. doi:10.15753/aje.2020.06.21.2.27
- 조정아 (2012). 청소년의 학교적응 잠재유형 분류와 생태체계적 영향요인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3(1), 277-309.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세희 (2019). **이항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서울: 교육과학사.
- Akaike, H. (1974). A new Look at the Statistical Model Identification. *IEEE Transactions on Automatic Control*, 19(6), 716-723. doi:10.1109/tac.1974.1100705

- Allen, J. P., Hauser, S. T., Eickholt, C., Bell, K. L., & O'Connor, T. G. (1994). Autonomy and relatedness in family interactions as predictors of expressions of negative adolescent affec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4(4), 535-552.
- Anderman, L. H. (2003). Academic and social perceptions as predictors of change in middle school students' sense of school belonging. *The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72(1), 5-22. doi:10.1080/00220970309600877
- Anderman, E. M., Maehr, M. L., & Midgley, C. (1999). Declining motivation after the transition to middle school: Schools can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Research & Development in Education*, 32(3), 131-147.
- Andruff, H., Carraro, N., Thompson, A., Gaudreau, P., & Louvet, B. (2009). Latent class growth modelling: a tutorial. *Tutorials in Quantitative Methods for Psychology*, 5(1), 11-24. doi:10.20982/tqmp.05.1.p011
- Ansari, A., Hofkens, T. L., & Pianta, R. C. (2020).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across the first seven years of education and adolescent outcome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71, 101200. doi:10.1016/j.appdev.2020.101200
- Baker, J. A. (2006). Contributions of teacher-child relationships to positive school adjustment during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4(3), 211-229. doi:10.1016/j.jsp.2006.02.002
- Bascoe, S. M., Davies, P. T., Sturge-Apple, M. L., & Cummings, E. M. (2009). Children's representations of family relationships, peer information processing, and school 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45(6), 1740-1751. doi: 10.1037/a0016688
- Bergin, C., & Bergin, D. (2009). Attachment in the classroom.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21(2), 141-170. doi:10.1007/s10648-009-9104-0
- Bronfenbrenner, U., & Morris, P. A. (2006). The bioecological model of human development. In W. Damon & R. M. Lerner (Series Eds.) & R. M. Lerner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1. Theoret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6th ed., pp. 793-828). New York, NY: Wiley.

- Clark, S. L. (2010). *Mixture modeling with behavioral dat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Collins, L. M., & Lanza, S. T. (2013). *Latent class and latent transition analysis: With applications in the social, behavioral, and health sciences* (Vol. 718). John Wiley & Sons.
- Davis, H. A. (2003). Conceptualizing the role and influence of student-teacher relationships on children's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 *Educational Psychologist*, 38(4), 207-234. doi:10.1207/S15326985EP3804_2
- De Laet, S., Colpin, H., Van Leeuwen, K., Van den Noortgate, W., Claes, S., Janssens, A., & Verschueren, K. (2016).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and adolescent behavioral engagement and rule-breaking behavior: The moderating role of dopaminergic gene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56, 13-25. doi: 10.1016/j.jsp.2016.02.002
- Eccles, J. S., & Roeser, R. W. (2011). Schools as developmental context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1(1), 225-241. doi:10.1111/j.1532-7795.2010.00725.x
- Ford, V. B., & Roby, D. E. (2013). Why do high school students lack motivation in the classroom?. *Global Education Journal*, 2013(2), 101-113.
- Furrer, C., & Skinner, E. A. (2003). Sense of relatedness as a factor in children's academic engagement and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5(1), 497-529. doi:10.1037/0022-0663.95.1.148
- Herres, J., & Kobak, R. (2015). The role of parent, teacher, and peer events in maintaining depressive symptoms during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3(2), 325-337. doi:10.1007/s10802-014-9896-3
- Joyce, H. D., & Early, T. J. (2014). The impact of school connectedness and teacher support on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ts: A multilevel analysi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9, 101-107. doi:10.1016/j.child youth. 2014.02.005
- Kerr, D. C., Preuss, L. J., & King, C. A. (2006). Suicidal adolescents' social support from family and peers: Gender-specific associations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1), 99-110. doi:10.1007/s10802-005-9005-8

- León, J., & Liew, J. (2017). Profiles of adolescents' peer and teacher relatedness: Differences in well-being and academic achievement across latent groups.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54*, 41-50. doi:10.1016/j.lindif.2017.01.009
- Lo, Y., Mendell, N., & Rubin, D.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8*(3), 767-778. doi:10.1093/biomet/88.3.767
- Longobardi, C., Prino, L. E., Marengo, D., & Settanni, M. (2016). Student-teacher relationships as a protective factor for schoo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from middle to high school. *Frontiers in Psychology, 7*(1988), 1-9. doi:10.3389/fpsyg.2016.01988
- Lynch, M., & Cicchetti, D. (1997).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adults and peers: An examination of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5*(1), 81-99. doi:10.1016/S0022-4405(96)00031-3
- Ma, C. Q., & Huebner, E. S. (2008).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Some relationships matter more to girls than boys. *Psychology in the Schools, 45*(2), 177-190. doi:10.1002/pits.20288
- McLaughlin, K. A., & Nolen-Hoeksema, S. (2012). Interpersonal stress generation as a mechanism linking rumination to internalizing symptoms in early adolescents.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41*(5), 584-597. doi:10.1080/15374416.2012.704840
- McMahon, G., Creaven, A. M., & Gallagher, S. (2020). Stressful life events and adolescent well-being: The role of parent and peer relationships. *Stress and Health, 36*(3), 299-310. doi:10.1002/smi.2923
- Meeus, W. (2016). Adolescent psychosocial development: A review of longitudinal models and research. *Developmental Psychology, 52*(12), 1969. doi:10.1037/dev0000243
- Nelis, S. M., & Rae, G. (2009). Brief report: Peer attachment i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32*(2), 443-447. doi:10.1016/j.adolescence.2008.03.006
- Nickerson, A. B., & Nagle, R. J. (2004). The influence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s on life satisfaction in middl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Social Indicators Research, 66*(1/2), 35-60. doi:10.1007/978-1-4020-2312-5_3

- Oldfield, J., Humphrey, N., & Hebron, J. (2015). Cumulative risk effects for the development of behaviour difficultie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disabilities.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41*, 66-75. doi:10.1016/j.ridd.2015.05.010
- Pakarinen, E., Silinskas, G., Hamre, B. K., Metsäpelto, R. L., Lerkkanen, M. K., Poikkeus, A. M., & Nurmi, J. E. (2018). Cross-lagged associations between problem behaviors and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in early adolescence.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8*(8), 1100-1141. doi:10.1177/0272431617714328
- Roeser, R. W., & Eccles, J. S. (1998). Adolescents' perceptions of middle school: Relation to longitudinal changes in academic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8*(1), 123-158. doi:10.1207/s15327795jra0801_6
- Rudolph, K. D. (2009). The interpersonal context of adolescent depression. In S. Nolen-Hoeksema, & L. M. Hilt (Eds.), *Handbook of depression in adolescents* (pp. 377-418). New York: Routledge.
- Stewart, T., & Suldo, S. (2011).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support sources and early adolescents' mental health: The moderating effect of student achievement level. *Psychology in the Schools, 48*(10), 1016-1033. doi:10.1002/pits.20607
- Wang, C., Hatzigianni, M., Shahaeian, A., Murray, E., & Harrison, L. J. (2016). The combined effects of teacher-child and peer relationships on children's social-emotional adjust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59*, 1-11. doi:10.1016/j.jsp.2016.09.003
- Wentzel, K. R. (2002). Are effective teachers like good parents?: Teaching styles and student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3*(1), 287-301. doi:10.1111/1467-8624.00406
- Zee, M., Koomen, H. M. Y., & Van der Veen, I. (2013). Student-teacher relationship quality and academic adjustment in upper elementary school: The role of student personality.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51*(4), 517-533. doi:10.1016/j.jsp.2013.05.003

ABSTRACT

Latent transition patterns and the determinants of early adolescents' relationships with teachers and peer students*

Chung, Hyunhee** · Jang, Eunae**

This present study examined the latent transition patterns of early adolescents' relationships with both teachers and peer students, and further sought to explore determinants during middle school transition. Data were collected from 2,258 students who had participated in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at two different time points(6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and 1st grade in middle school).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latent transition analysis using Mplus 8.0.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the patterns of the relationships with teachers and peer students at the two points were classified into three subtypes such as the 'high teacher-high student relationship', 'average teacher-average student relationship' and 'low teacher-low student relationship'. Secondly, the latent profile patterns of relationships with teachers and peer students were found to be transferred to a higher level or at the least were maintained. Thirdly, gender, life satisfaction, parental neglect, academic values, school rules were significant determinants of the transition. In particular, depression, academic values, school rules were seen as being significant determinants in predicting the transition. The implications for prevention and intervention in early adolescents' teacher and student relationship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relationship, teacher, peer, early adolescence, latent transition analysis,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KCYPs)

투고일: 2021. 9. 6, 심사일: 2021. 10. 25, 심사완료일: 2021. 11. 3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19S1A5A2A01046223)

** Keimyung University